

보호자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조사기간 2021.5.27 ~ 6.2.

조사대상 경남교육청 소속학교 재학생의 부모, 보호자, 양육자, 가족
31,4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5.5%p

🔍 2021-2호 (통권 9호)

이슈+생각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 코로나19의 유행은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슈+생각> 지난 호에서는 교원들의 느낌과 생각을 살펴 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보호자 분들이 학교에 가지는 생각과 의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 눈에 띄는 것은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를 몇 명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최근 국회입법청원에서 제시된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상한 20명 이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치원은 13명,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22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 보호자들은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학교공간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역시 전체 학교급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교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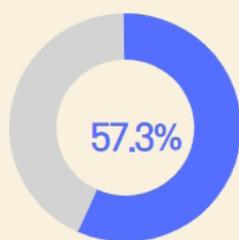
발행인 | 이영주

문의 | 055-269-0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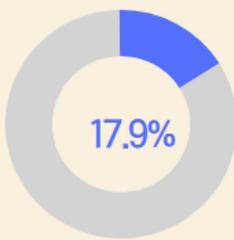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https://gerii.gne.go.kr>

적절한 등교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9시 이후 등교에 대한 학교급별 동의 수준



유치원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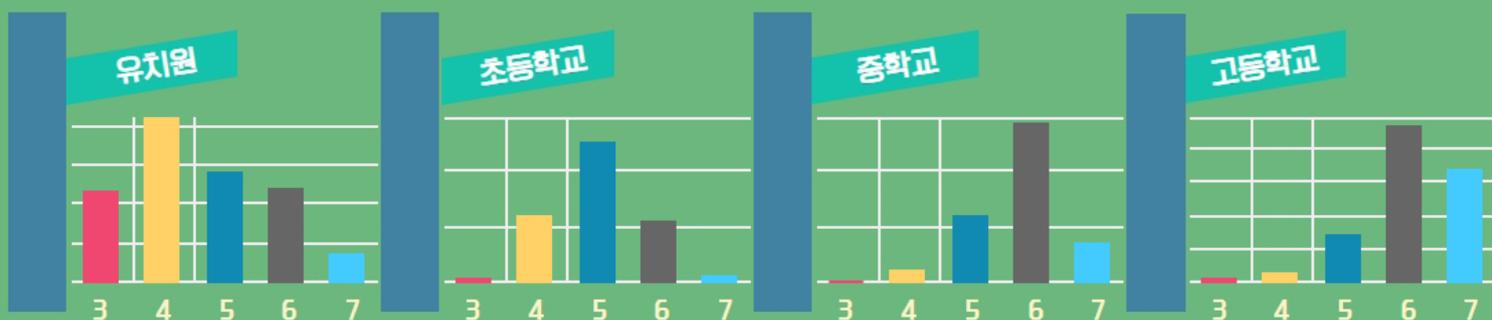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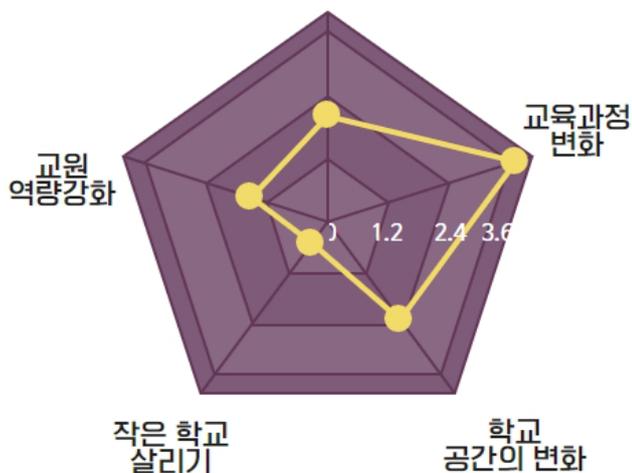
고등학교

학교의 적절한 정규 수업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부각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

유치원

- ① 교육과정의 변화
- ② 학교 공간의 변화
- ③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등학교

- ① 교육과정의 변화
- ② 학급당 학생수 감축
- ③ 학교 공간의 변화

중학교

- ① 교육과정의 변화
- ② 학교 공간의 변화
- ③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등학교

- ① 교육과정의 변화
- ② 학교 공간의 변화
- ③ 교원 역량 강화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은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s://ebook-lib.gne.g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정책 **지공**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발행인 이영주
 발행일 2021. 6. 30.

“보호자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

이 희 진(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01 들어가며....

교육사 전체에서 보호자의 참여는 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9년 교육부에서도 학부모지원팀을 신설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보호자 참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기본법」 제13조에 의해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김영선, 2019).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대화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보호자의 참여 기회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고 공개수업이나 학교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보호자-교육기관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급변기라는 점 역시 보호자와 교육기관 사이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길 바라는지 그리고 보호자와 교육기관 사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학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 학교공동체의 발전 방안에 대한 보호자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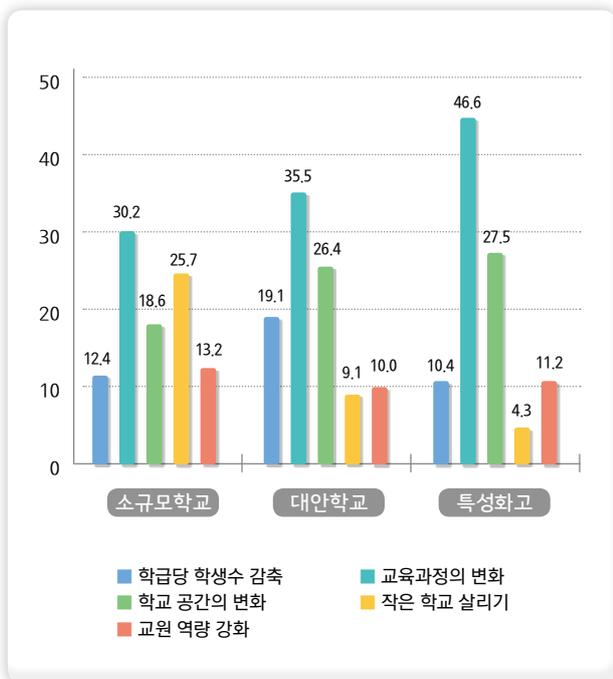
보호자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21년 5월 27일~2021년 6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31,41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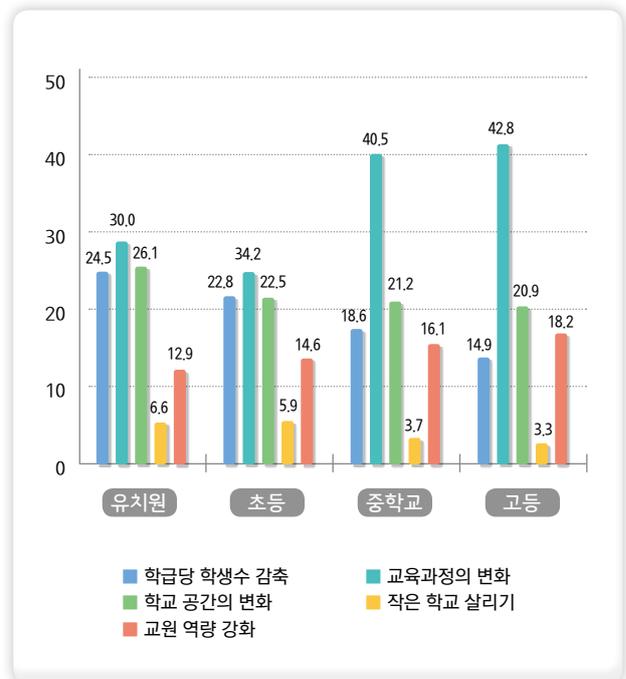
가.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요구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교육 영역에서는 기존의 몇몇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거나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호자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간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보호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타났으며, 학교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보호자 중 46.6%가 교육과정의 변화로 지금 대두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림 1] 학교 특성에 따른 보호자 의견 비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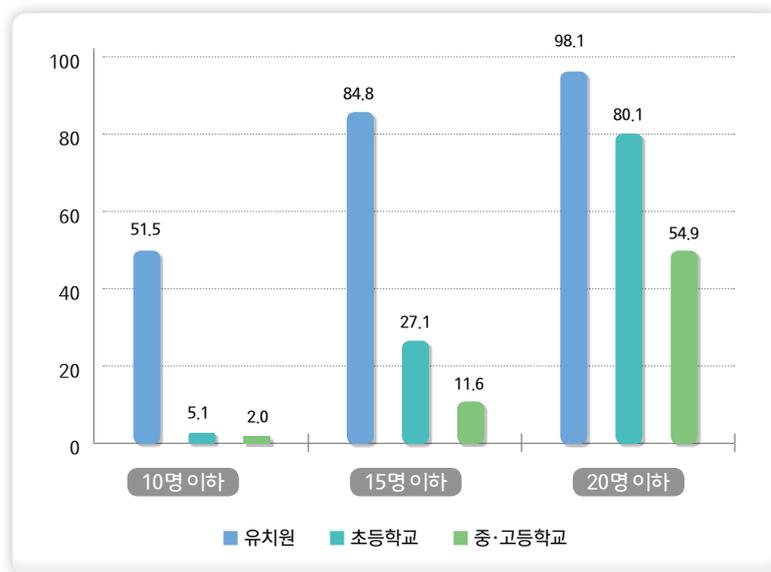


[그림 2] 학교급에 따른 보호자 의견 비교(단위: %)

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요구

- 한 공간에 보다 적은 수의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전까지는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 수’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더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삶의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해외 여러 국가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1/2 수준으로 낮추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신규 교사 고용과 학급 규모 축소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경남일보, 2021.5.6.).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2020년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경상남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나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치보다는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는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전체의 5.6%(934개)에 달한다(경남신문, 2021.5.31.). 반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상남도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사 중 학급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에 투입된 인원은 전무하다(머니투데이, 2021.5.31.).



[그림 3]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보호자 의견(단위: %)

경남지역 보호자들은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13.19명 이하, 초등학교는 20.35명 이하, 중·고등학교의 경우 22.82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지지 수준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1.5%에 달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요구가 낮게 나타났으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 대한 동의 수준은 54.9%로 나타났다.

다. 적절한 등교시간

- 등교시간에 대해서는 9시 전후에 집중하여 동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는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30분 이전인 상태다(에듀프레스, 2020.10.14.).

경상남도 보호자들의 의견 역시 9시 이후 등교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9시 이후 등교에 대한 지지 수준이 각 10.12%, 8.68%에 불과했다.

〈표 1〉 적절한 등교시간에 대한 보호자 의견

	8시 이전	8:00~8:30	8:30~9:00	9:00 ~ 9:30	9시 30분 이후
유치원	1.22%	9.42%	32.04%	45.20%	12.13%
초등학교	0.58%	21.33%	60.23%	16.33%	1.54%
중학교	3.13%	42.06%	44.69%	9.22%	0.90%
고등학교	10.08%	47.05%	34.19%	7.67%	1.01%

이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의 사례에서는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학생의 보호자들은 여전히 9시 등교제를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그 이유는 돌봄과 안전에 대한 우려다.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가정과 학교뿐이며, 다른 문화나 여가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과 함께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현실 때문에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보호자들의 부담이 큰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노동시간 감축과 전 사회적인 삶의 질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라. 소통 강화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 어려워진 보호자-교육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의견 수집 문항에 4,766명이 응답하였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구체적 의견으로는 온라인 수업에서도 수업 공개를 원한다는 의견과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보호자 전체를 학교로 초대하는 큰 행사 보다는 반별, 또는 주제별로 보호자 소모임을 조직하여 학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반영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아이엠스쿨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학교와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열린 소통의 기회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림 4] 보호자-교육기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의견 클라우드

03 나가며

보호자는 학생 또는 교직원과 달리 교육기관에 항상 함께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참여의 기회가 좁아지기도 하고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교사와 보호자 집단은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두 집단 모두 학교교육의 질 제고라는 점에 대한 생각은 일치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파트너 관계라는 것은 분명하다(배상훈·조은원, 2020).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육기관, 특히 학교와의 소통은 부모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김세리 외, 2016). 즉 보호자의 요구, 보호자와 교육기관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도 보호자와의 소통 강화는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는 사회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가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보호자라 할 수 있다. 보호자를 학생의 가족이라는 사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개입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기관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인식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호자의 의견을 단순히 사적인 이해관계로 받아들이기 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호자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OECD 교육지표 2020.
- 김세리 외(2016).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39-154.
- 김영선(2019). 학부모 학교참여 경험이 학교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3-48.
- 배상훈, 조은원(2020). 학교평가의 목적, 평가주체,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8(3), 1-28.
- 경남신문(2021.5.31.). 과밀 학급 두고 전면 등교 수업할 수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52349> (2021.6.23. 인출)
- 경남일보(2021.5.6.). 경남교육연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해야”.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732> (2021.6.23. 인출)
- 머니투데이(2021.5.31.). '30명 초과' 과밀학급만 2만개...2학기 전면 등교 가능할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3114310652599> (2021.6.23. 인출)
- 에듀프레스(2020.10.14.). 중고생들이 가장 일찍 등교하는 지역은?.. 대구, 대전, 서울, 경북 순.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381> (2021.6.23. 인출)